

EXHIBI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22 NOV, 2024 - 2 FEB, 2025

스미 김고리 & 용기문

2024.11.22
- 2025.2.2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

NAYOUNGIM & GREGORY MAASS

PARANOIA PARADISE

ATELIER
HERMÈS

CREATE

편집증의 낙원: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의 세계

안소연 / 아티스틱 디렉터

2004년부터 공동작업을 해 온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는 지난 20년간 아티스트로서 전방위적이라 할 만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함께 펼쳐왔다. 스튜디오 내에서 행하는 조각/회화 작업은 물론이고, 대규모 공공 설치 작업과 프로젝트형 갤러리 운영, 전시기획, 출판, 커뮤니티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활동은 쉼 없고 부지런한 것이었다. 다작의 작가이기도 한 이들은 (이번 전시에서도 무려 60여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매 전시마다 각양각색의 형상들을 대거 소개하는 까닭에 관객이 제공받는 그들 작품세계에 대한 시각적 정보는 차고 넘친다 할 만큼 풍부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늘 작가의 작품을 잘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 마스 작업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티브와 재료들은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방대하다. 네번째 전작 도록 출간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 정리한 작업의 원천 목록에는 바퀴벌레, 개구리, 고양이 등 다양한 종의 동물에서부터, 각종 음식류와 화장실 용품, 속옷, 항공 자켓 같은 의복류, 소파와 병풍, 쓰레기통 따위의 가정용품, 텐트와 개집, 독신자 아파트 등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아우토반, 라디오 방송국, 빈민가 등의 사회 기반 시설, 방산과 북극성 같은 대자연, 더 나아가 법의학, 태양광 수집기, 우주 정거장 같은 하이테크의 과학적 산물과 클라인 병, 절대주의, 만트라, 모순어법, 유토피아 등의 고차원적인 정신활동 대상이 포함된다. 등장 인물 또는 캐릭터들도 다양해서 미니마우스와 스펀지밥 같은 만화 캐릭터와 이국의 민속 인형부터 데이빗 핫셀호프와 엘비스 프레슬리 등 추억 속의 대중 스타들과 피카소, 헨리 무어, 요셉 보이스 등의 예술가들이 함께 망라된다.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상투적인 것들과 고급 예술이, 과거와 현재가, 동/서양의 문화적 산물들과 지식, 취향 등이 서로 얹혀 있는 것은 복수 저자성의 특징 중 하나인 문화적 합종연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당시만 해도 극동의 나라였던 한국의 서울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파리로 유학 간 여성과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뫼트스 뢰텐(Pontus Hulten)이 세운 고등조형예술학교(Institut des Hautes Études en Arts Plastiques)에서 미술이론을 배운 독일 남성은 각자 자신만의 문화적 스토리를 가지고 파리로 유학 왔고 예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라는 교차점에서 서로 조우했던 것이다. 한국 전쟁 직후 UN 재건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견됐던 아티스트 로베르 필리우(Robert Filliou)와 김나영의 아버지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거나, 그레고리 마스의 어머니가 화가 귄터 외커(Günther Uecker)의 문하생이었다는 우연한 사실들은 그들이 각색하는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일부로 잠재된다. 여전히 외국어인 프랑스어로 상호 소통하며 지내는 이들의 삶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곧 일상이 된다.

과잉에 가까운 정보에도 불구하고 김 & 마스의 작업이 여전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식별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뒤엎기게 한 조합 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시간간격으로 출처가 먼 것들의 이질성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이식하여 부조화를 조장하는 일, 논리나 아름다움보다는 놀라움을 추구하는 일,

PARANOIA PARADISE: THE WORLD OF NAYOUNGIM & GREGORY MAASS

SOYEON AHN / ARTISTIC DIRECTOR

Since 2004, Nayoungim & Gregory Maass(N & GM) have been collaborating across a wide range of fields in a practice best described as omnidirectional. The duo's ongoing, diligent, and tireless endeavors include creating sculptures and paintings in their studio, producing large-scale public installations, running a gallery as a project, publishing, curating exhibitions, and organizing community workshops. They are prolific, and every exhibition they hold presents myriad forms (this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features as many as sixty new works), providing visitors with abundant visual insights into their work. Yet, intriguingly, a lingering sense that we don't know much about the work remains.

N & GM employ a vast array of motifs and materials, so diverse in type and number that it's almost impossible to categorize them. The list of influences for their work, which they recently compiled in preparation for their fourth catalogue *Raisonné*, includes: various species of animals such as cockroaches, frogs, and cats; types of food; bathroom items; clothing & fashion including undergarments and bomber jackets; household items such as sofas, folding screens, and trash cans. Residential forms like tents, kennels and *garçonnière*; social landscapes such as autobahns, radio stations, and slums; outdoor phenomena such as icebergs and a lodestar. High-tech & scientific forms such as forensic science, solar collectors, and space-stations; and concepts tied to intellectual and artistic thought such as the Klein bottle, Suprematism, mantras, oxymorons, and utopia. Additionally, their work features a wide variety of characters, from exotic folk dolls and animation characters such as Minnie Mouse and SpongeBob, to nostalgic pop stars such as David Hasselhoff and Elvis Presley, and artists such as Picasso, Henry Moore, and Joseph Beuys.

High art and the commonplace,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cultural products, knowledge, and tastes of the East and the West are intertwined as such in the world of N & GM. These fusions can be interpreted as results of a cultural merger, a characteristic of works made by multiple authors. When the two first met in Paris, Nayoungim had recently arrived from Korea – then still considered a distant Far Eastern country – after studying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ass, originally from Germany, had studied philosophy at Sorbonne University and then art theory at the Institut des Hautes Études en Arts Plastiques, founded by Pontus Hulten. Both arrived in France with their unique cultural backgrounds. Their paths converged at the École des Beaux-Arts. Some delightful coincidences include the fact that Maass' mother was a student

때로는 회화화를 통해 불경함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는 보는 이들에게 흥미와 더불어 불편함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언어유희에 가까운 제목은 작품의 의도를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에서 기대하는 정제된 양식이나 공감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혼종과 그로테스크의 세계인 것이다.¹

김 & 마스는 이를 “프랑켄슈타인화(Frankensteining)”라 일컫는다. 납골당이나 묘지에서 훔친 시체 조각들을 조립한 뒤 전기충격을 가해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미친 의사 이야기를 빗댄 것이다. 여기 저기서 수집한 사물과 아이디어를 일부씩 떼어내고 재조합해서 기이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자신들의 작업방식 또한 그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공원에 버려진 헬로 키티 조형물을 주위 작품으로 부활시킨 반야 키티(Kitty Enlightenment)(2024)를 보자. 순수함의 상징물은 때가 뒹다는 이유로 용도폐기 되었는데, 작가들은 더러움을 씻기고 부항 방혈법으로 온기를 채워 이를 회생시키고자 했다. 귀여움의 역할을 담당하느라 애초부터 갖지 못했던 입을 선사하여 기쁨과 슬픔이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됐다. 아누스와 같이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된 키티는 마침내 ‘깨달음(반야)’에 도달하며 변화를 관장하는 로마의 신과 불교의 지혜가 하나가 된다.

도자기로 만든 조각 **작업실에서의 힘든 하루(A rough day at the workshop)**(2022-24)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탈진’해서 (이때 ‘번 아웃’은 도자기의 연소 과정과 연관될 수 있다) 분해된 듯 누워 있는 인물들을 표현한다. 거기에는 재를 남기고 타들어간 담배꽂초와 가발, 틀니, 원조 아케이드 게임의 주인공 ‘팩맨(PacMan)’이 등장해 쉼 없는 노동과 죽음에 가까운 휴식을 은유한다. 또한 창자 모양의 오이 피를 꾸러미가 몸체의 타널을 통과하는 형상이 등장하는데, 오이 위에는 커리어를 망친 후 닳치는 대로 아무 광고에나 출연했던 니콜라스 케이지의 고된 얼굴이 프린트되어 있다. 이 시리즈의 애초 제목은 ‘헨리 무어를 닮은(Hery Moorish) 000’이었는데, 그것은 20세기의 대 조각가가 구멍 뚫린 신체와 늘 누워만 있는 포즈로 어떻게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지에 대한 작가들의 의구심을 내포한다.

닥터 프랑켄슈타인 코스프레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체야말로 주체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김 & 마스는 이번 전시에서 여러 점의 인체 해부도를 제시하는데 신체 장기로 치환된 인간은 형이하학적인 물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섹슈얼리티와 충동, 탕진 욕구처럼 내부의 힘이 외부로 발현되려는 위험한 신호 역시 안과 밖이 뒤집히면서 백일하에 노출된다. 김 & 마스의 작품 중에 출연과 알고월에 관한 모티브가 유난히 많은 것은 그런 방종과 탐닉의 문화에 깃든 개인의 자유와 열정, 어리석음을 흥미롭게 관찰하기 때문이다. **거품은 남근상을 따른다(Foam follows Phallus 2.0)**(2024)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라는 모더니즘의 모토를 모방하면서 은근히 놀리는 언어유희를 즐긴다. 거대한 모뉴먼트로 표현된 남근상 옆에는 추파촉스를 담았던 빈 용기가 매달려 있는데, 캔디통이 거품 가득한 맥주잔 모양이었던건 새로운 발견이다. 쾌락의 순간은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쇠사슬로 인체와 연결된다. 컴퓨터 단층촬영을 입체화 한 듯 층층이 배열된 장기로 드러난 인체는 이미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양뿔맞은 인형의 손들에 의해 간신히 버티고 있다.

사물의 기호에 집중하는 김 & 마스의 작업은 동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적 태도인 ‘포스트프로덕션’의 관점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작가가 작업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사물들과 이미지, 아이디어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 생산품들이기 때문에 흔히 레디메이드나 차용의 개념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자르기, 덧붙이기, 칠하기, 바느질하기, 용접하기 등

of the painter Günther Uecker and that Nayoungim's father worked with artist Robert Filliou(when Filliou was dispatched to Korea as a member of the UN reconstruction team shortly after the Korean War). These form part of the many episodes that N & GM dramatize in their work. In the life of these two who continue to communicate in French, a foreign language for both, cultural diversity quickly becomes an everyday occurrence.

The reason why work remains difficult for the audience despite the ample information provided is not that the diverse components are difficult to identify, but rather that the ways they are combined are very particularly distinctive. N & GM bring together elements distant in time and space, disregarding their heterogeneity and thus fostering a sense of dissonance. They pursue surprise rather than logic or beauty, often employing caricature to provoke irreverence, which elicits ambivalent feelings of intrigue and discomfort in viewers. Furthermore, the duo's work titles, which resemble wordplay, further obscure the messages or meanings. Far from the refined style or empathetic sentiment generally expected from art, N & GM present to us a world of hybridity and the grotesque.¹

The duo refers to their creative process as “Frankensteining,” invoking the mad scientist who assembled a human part of corpses stolen from charnel houses and cemeteries, then electrified it to life. Similarly, N & GM collect objects and ideas from various sources, dismantle them, and reassemble them to create bizarre, unexpected results. Take, for example, their work *Kitty Enlightenment*(2024), developed from a discarded Hello Kitty sculpture they found in a park. The symbol of innocence had been abandoned because it was dirty. N & GM “revived” it by cleaning it and filling it with warmth. They also gave her a mouth – original Hello Kittys don't have one so they can maintain their cuteness –, allowing her to now convey emotions like joy and sadness. Bearing two faces like Janus, this reborn Kitty reaches enlightenment or *prajña*.

The duo's ceramic sculpture titled *A rough day at the workshop*(2022-24) depicts figures lying down as if burned out after a hard day's work ('burning out' here may allude to the ceramic firing process). The piece also features cigarette butts, wigs, dentures, and the early arcade game character Pac-Ma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metaphors for endless labor and the exhaustion that borders on near-death. One figure with a bundle of pickled cucumbers shaped like intestines wears a tired-looking face of Nicolas Cage, the Hollywood actor who is known to have taken on random commercials after his acting career declined. This ceramic series was originally titled Hery Moorish 000, reflecting the duo's skepticism about the popularity of the 20th-century sculptor Henry Moore, known for his widely admired abstract reclining figures with holes.

The Doctor Frankenstein theme is fitting here also because the human body is where the subject's vulnerability is exposed. In this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N & GM present several human anatomy diagrams, suggesting that humanity – when reduced to body organs – is indistinguishable from metaphysical objects. With the

두 사람 각자가 잘 하는 방식으로 재가공 단계를 거친 것이다. 즉 디제잉과 같은 편집 방식으로 문화적 대상을 선택하고 새로운 문맥 속에 삽입한 것이다. 이는 재활용 행위를 통해 저자성이나 독창성 같은 개념을 깊이 있게 재검토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차용이라는 ‘소유’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동시대 문화형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포한다.²

찢었어(I nailed it)(2024)는 미술사의 여러 요소들을 가져오면서 그것들을 인용하는데 방점을 두기 보다는 작업을 완수한 본인의 성취를 강조한다. 인체 변형을 유명한 피카소의 드로잉을 재현하고 지시하는 이 작업은 물감이나 붓이 아니라 ‘못박기(nailing)’ 행위로 완성되는데, 그 방법은 못으로 옵아트와 한 획을 그은 권터 외커의 작업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평면작품을 입체화하려는 작가들의 의도는 절대적인 평면을 추구한 말레비치(K. Malevich)의 금빛 직사각형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작은 못들을 촘촘히 박는 행위는 물입을 통해 복잡한 사유를 사라지게 하는 수행의 과정이 된다. 완성한 후 내치르는 “마침내 내가 해냈어!(I nailed it)”라는 탄성이 미술사의 모든 참조물들을 뒤덮는다.

김 & 마스는 우연히 구한 오래된 병풍에서 자수가 놓인 그림 부분과 틀을 분리하여 두 종류의 작품을 완성한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프랑스판 실험이었던 쉬포르/설파스(Support/Surface)의 형식 실험을 연상시키는 이 행위는 표면과 틀의 유연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며, 그것이 족자나 병풍 같은 아시아 전통미술의 형식 속에 이미 내재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족자로 재탄생한 꽃 낫잠(*Flower Nap*)(2024)은 낙원의 상징인 꽃과, 파리 따위의 불청객에 대한 불안감 또는 방어의 전략으로 채택된 파리채를 대조적으로 결합하여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를 시각화 한다.

내용물이 떨어져 나간 빈 병풍의 틀은 재정비되어 새로운 붓글씨 병풍으로 부활한다. 영어 알파벳을 서예체로 단련하는 내공을 쌓는 대신 ‘서투르거나 어수룩한데 고아한 기품이 있다’라는 서예 대가의 초월적인 경구를 건강부회해서 천연덕스러운 작품을 완성했다. 한쪽 면에는 ‘PARANOIA PARADISE’를, 그 이면에는 딸기 *발이트 뤼든*(*STRA WBER RYFI ELDS WHAT EVER*)(2024)이란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적어 넣었다. 6쪽 병풍에 맞추어 단어를 분절한 탓에 읽기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났든(whatever)’이란 단어가 표방하는 혼돈의 세계와 마주해야만 한다. 딸기발을 낙원과 연결해보거나 비틀즈의 노래를 연상하거나, 그 노래의 결과로 조성된 뉴욕 센트럴파크 내의 존 레논 기념공간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노래가 딸기발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세군 아동보호소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정보를 추적해 본다. 거기에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forever를 whatever로 바꾸었을 거라는 짐작이 더해지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을 평면으로 설치하게 된 탓에 문제의 이면은 관객의 시야에서 영영 사라져 버린다.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의 작업은 넘치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어떤 단일한 독해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수집한 사물과 아이디어가 의미의 전달체라기 보다는 용도에 봉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사물의 수집은 ‘샘플링’에 다름없고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는 것이다.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대부분 개인적인 기억이나 감정과 연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와 관객은 각자 자기만의 경험에 기대어 그 의미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편집증의 낙원’은 정보 과잉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한 은유이자, 노출된 수많은 사물들 사이에서도 편집증의 호사³를 동경하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궁금증 앞에서 서성거릴 관객들이 만나는 예술 세상을 은유한다.

inside and outside reversed, there are ominous signals that internal forces such as sexuality, impulse, and desire are about to surface. N & GM often incorporate motifs related to smoking and alcohol, reflecting their interests in themes of individual freedom, passion, and stupidity embedded in such a culture of indulgence.

Foam follows Phallus 2.0(2024) employs a subtle wordplay, mimicking the modernist motto “Form follows function.” Next to the phallus, depicted as a huge monument, hangs an empty Chupa Chups container – a surprising discovery as the candy container is shaped like a foamy beer mug! This moment of pleasure connects to a human body bound by a sturdy, unbreakable chain. The human body, revealed as layers of organs as if it were a three-dimensional computerized tomography scan, is slightly tilted and barely held up by the hands of an adorable doll.

Since N & GM’s work focuses on the signification of objects, it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postproduction. The objects, images, and ideas that they employ are always pre-existing cultural products, so their work is often described as readymade or appropria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 & GM always reprocess their sources manually: they cut, add, paint, sew, weld, and utilize any of their other skills for the desired outcome. In other words, these artists select cultural objects and then insert them into a new context, as DJs sample and edit. This method allows them to reexamine concepts of authorship and originality through recycling, and to explore the idea of sharing – not owning –contemporary cultural forms.²

Borrowing elements from art history, *I nailed it*(2024) highlights not what it is cites, but rather that the work has been accomplished successfully. This work reproduces and references Picasso’s famous distorted human figures; but instead of using a brush or paint, N & GM produced it by the act of nailing, a technique borrowed from Günther Uecker, the German artist whose use of nail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p art. They also incorporated a golden rectangle, a motif associated with Kazimir Malevich who pursued absolute flatness, thus emphasizing their intention to transform a traditionally two-dimensional work into three dimensions. However, as they were absorbed in hammering small nails, all complex thoughts went away. So, the exclamation “I nailed it!” humorously overshadows all the piece’s references to art history.

N & GM produced two types of work from a found, old folding screen by separating its frame from the embroidered painting. Evoking the formal experiments of the 1960s French art movement Supports/Surfaces’, this process not only calls attention to the flexibl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and frame, but also points to ideas long present in traditional Asian art forms such as hanging scrolls and folding screens. Reborn as a hanging scroll, *Flower Nap*(2024) contrasts a flower, a symbol of paradise, with a flyswatter, representing anxiety or defense against uninvited guests, like flies. The idea of “Paranoia Paradise” is visualized as such.

1 혼종과 그로테스크는 그들이 수학했던 1990년대에 주목되었던 개념들 중 하나로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아브렉시움(비천함)’ 이론이나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이질학(Heterology)’(1933)과 연관된다. 오염되고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려 노력해 온 지배권력의 역사와 그것의 불가능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1996년에 퐁피두 센터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브-알랭 보아(Yves-Alain Bois)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가 전시 <비정형: 사용자 가이드(L’informe: mode d’emploi)>를 기획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riaud), <포스트프로덕션>, 정연심, 손부경 번역, 그라파이트온핑크, 2016, p.14

3 그레고리 마스는 지극히 유명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서 기자들을 피해 호텔 방에서 뛰어나가기까지 한 소설가 토마스 핀천(Thomas Pinchon)의 사례를 ‘럭셔리한 파라노이아’라 말한다.

The artists gave the emptied frame a new life as a calligraphy screen. While calligraphy i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training inner strength and energy, N & GM adopted an old calligrapher’s transcendental adage: “Inept and clumsy, but with elegance,” and produced a work in a casual manner. On one side of the screen, they wrote “PARANOIA PARADISE,” and on the other, an enigmatic phrase “Strawberry Fields or Whatever (STRA WBER RYFI ELDS WHAT EVER).” The words are difficult to read because they have been divided across the six-panel folding screen. But a real confusion arises when the viewer has to figure out what the word “whatever” means. Viewers may associate the “strawberry fields” with paradise, with the Beatle’s song “Strawberry Fields Forever” or the John Lennon memorial in Central Park named after the song. They might also recall that the song actually refers to a Salvation Army children’s home, rather than literal strawberry fields. One might speculate that N & GM replaced “forever” with “whatever” to match the character count. However, in this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the work is installed to be viewed from only one side, with the other side hidden from view.

N & GM’s work provides abundant visual information but resists a single interpretation. This is because the artists employ objects and ideas not as vehicles of meaning, but as elements that serve a purpose. For them, collecting old objects is nothing more than sampling; it is gathering of fragments of memory. Since the meaning of these objects are often related to personal memories or emotions, the artists and the viewers alike must then create meaning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s. “Paranoia Paradise” serves as a metaphor for an era where insufficiency persists, despite information overload. It is a metaphor for the “world” where the artists, longing for the luxury of paranoia amid objects, and viewers, curiously lingering in front of their artworks, encounter.³

1 Hybridity and the grotesque were prominent concepts in the 1990s when N & GM were students. Related to Julia Kristeva’s theory of abjection and Georges Bataille’s *Heterology*(1933), these concepts highlight the historical—and often failed— attempts of by the ruling powers to exclude the impure and heterogeneous. In 1996, based on these themes, Yves-Alain Boix and Rosalind Krauss curated the exhibition “L’informe: mode d’emploi” at the Centre Pompidou, which drew tremendous attention.

2 Korean translation of Nicolas Bourriaud’s *Postproduction*, published by Graphite on Pink, Seoul, 2016, p. 14.

3 Referring to the famous novelist Thomas Pinchon, who was so public-shy he once jumped out of his hotel room to avoid reporters, what Gregory Maass describes as “luxurious paranoia.”

“우리는 유머리스트가 아닙니다”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와의 대화

안소연 동일한 어원을 반복하면서도 반대 개념이 병존하는 문구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는 이번 개인전의 제목으로서 만이 아니라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의 작품세계 전반을 은유하는 키워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용 모순이라 할 겹쳐진 두 단어로 이번 전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우리가 짓는 제목들은 종속적인 작품들입니다. 관객들이 반드시 알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알면 도움이 되지요. 예를 들어, 이전 전시 제목은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는다’였어요.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는 은유이며, 이 두 단어가 이원론이나 반대 개념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은유법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두 다른 개념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지요. 은유는 우리 삶 속 모든 곳에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속에도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가 좋은 예이지요.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계성 아래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파라다이스이며 디스토피아적 세계인 것이죠. 모든 관습과 정체성은 정신분열적 과정을 통해 뒤섞이고 탈영토화되고 훼손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붕괴에 대한 반응으로 파라노이아가 나타납니다.

파라노이드의 파라다이스는 적대적이고 독단적이며 악의적이고 예측불가 합니다. 파라노이드는 다른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거나 해를 입히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종종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때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파라노이드의 파라다이스에서 악은 정당화나 배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과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고 의지하는 것을 억누를만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의심과 불안감을 품곤 합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빼앗아버릴 수도 있고요.

안 “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는 현실과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김 & 마스 현실 또는 삶은 정보의 홍수예요. 우리는 그 중 95% 정도를 걸러내고, 그 중 약 5%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보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대신 이를 동화와 비슷한 일종의 내러티브로 바꿔놓지요. 현실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를 계속하면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한 지루함은, 삶의 순수한 본질과 우리 사이의 연결성을 시사하는 상황 속에서 방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곤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지루함을 삶의 심오함으로 이해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루함이라는 느낌에 불만을 갖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루함을 삶 자체의 심오한 측면으로 봐요. 예컨대 다양한 흥미로운 예술작품을 접함으로써 마음을 과도한 자극으로 가득 채울 때 발생하는 상태처럼 말이에요.

“WE ARE NOT HUMORISTS”

Nayoungim & Gregory Maass in conversation with Soyeon Ahn

Soyeon AHN The exhibition title, *Paranoia Paradise*,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that share the same etymology but refer to opposing concepts. I think it's also an effective keyword that captures the metaphor running through your practice. With the title that appears to be oxymoronic, what do you intend to convey in this exhibition?

Nayoungim & Gregory Maass Our titles are dependent works of art. You do not necessarily have to know or understand them, but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For example, our earlier exhibition title “The early worm catches the bird”. “Paranoia paradise” is a metaphor, the words are not a dualism or contrast. Metaphors use one thing to describe another thing in a way that shows connections between two different concepts. Metaphors are everywhere in our lives. Not only in language, but also in how we think and act. “Time is money” is a good example.

We live under a method called capitalism; that's our paradise, it's a dystopian world. All customs and identities are scrambled, deterritorialized, and undermined through a schizophrenic process; one response to this universal undoing is paranoia.

The paranoid's paradise is hostile, arbitrary, malicious, and unpredictable. The paranoid strongly believes that others are seeking to take advantage of them or cause them harm, often without any reason or explanation behind it at all. Sometimes simply for amusement purposes alone. In this paradise, evil doesn't require a justification or background. Individuals with these thought processes often harbor suspicions and anxieties towards anyone they perceive as having the ability to withhold something they desire and rely upon. There is also the potential to strip it away from them altogether.

AHN What kind of relationship does *Paranoia Paradise* have with reality?

N&GM Reality, or let's say life, confronts us with a flood of information, of which we filter out about 95%. We tend to focus on about 5% of this information, which does not always reflect reality; instead, we spin it into a kind of narrative that resembles a fairy tale. Seeing reality as it is, without sugarcoating it, can lead to desensitization. Utter boredom often acts as a defense mechanism in situations that signal our intimate connection to the unadulterated essence of life itself. We should understand this kind of boredom as a profound aspect of life. People often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feeling of boredom and generally try to avoid it. Some see boredom as a profound aspect of

안 작가의 작업실은 만물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오브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사물들에 대한 관심과 수집은 어떤 계기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 & 마스 우리 사회는 재산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 소유물을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데, 이는 죽음 관련 의례와 관례에 집착하는 문화에 비추어볼 수 있어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화했어요. 무덤에 물건들을 같이 묻는 문화도 있고, 창조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행동에 더 관여하는 생활을 보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상화하는 듯합니다. 창작이라는 활동은 예외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의식으로 유명했어요. 한때 흰 석회암으로 싸여져 있던 기자의 피라미드는 죽은 파라오가 죽음의 왕으로서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꾸릴 것을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지지요.

안 작품에 활용되는 오브제의 카테고리는 미술사에서부터 민속공예품, 키치와 만화 캐릭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한계가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위계질서도 없는 것 같구요. 이번 전시의 작품들도 그것들의 조합인데 그 와중에 인간의 신체나 건강과 관련된 모티브와 제목이 많아 흥미롭습니다.

김 & 마스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건강은 세상이라는 시공간 속 우리가 존재하는 맥락에서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형성해줍니다.

작품에 활용되는 오브제들은 보통 사거나 발견된 것들, 수작업으로 만든 것들, 맞춤 제작된 것들, 빌려온 것들 등입니다. 이 물건들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줘요. 사물이 우리를 우리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대변한다고도 상상하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경험’, ‘관계’ 그리고 ‘상실’인 듯합니다. 프랑켄슈타인화(Frankensteining)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작업 방식이고요.

해부학과 신체부위 관련 모티브와 질감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해부학은 주로 절개, 신체부위 배열의 검사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구조에 집중하지요. 식물의 해부학적 요소에는 뿌리, 줄기, 잎이 포함돼요. 질감은 우리 같은 재료들의 표면의 모습 및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상화된 외모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나 거식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을 경험하지요. 보통 가슴, 머리카락, 얼굴 구조, 피부 톤, 근육 등에 불만을 품어요. 이러한 추세는 20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널리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의심하지 않았고,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수적이지 않게 됐음을 보여주는 패턴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우리 몸에 의존하지 않지요. 음식 생산, 관계 맺기, 출산과 같이 한때 필수적이었던 많은 신체적 과업이 아웃소싱 됐어요.

우리의 예술작업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안 여러 전시에 등장해 눈에 익숙한 *코캣지 드로잉(Booger Drawing)*(2020-2024)은 화장실 용품이나 똥 그림 작업처럼 소위

life itself – a state that arises when our minds are flooded with excessive stimulation, for example by encountering a variety of exciting artworks.

AHN Your studio is filled with objects, almost like a general store or supply warehouse. I'm curious to hear what sparked your interest in such old objects in the first place, and how you began to collect those.

N&GM Our society prioritizes material possessions such as property and wealth over the value of life, which can be compared to a culture fixated on death rituals and practices. We evolved to revolve around the concept of death. We seem to idolize the idea of death by burying ourselves in objects and constantly engaging in destructive behaviors while rarely focusing on creating. Creating something is the exception.

The ancient Egyptians were known for their death rituals. It is believed that the Pyramid of Giza, once covered with a white limestone casing, is believed to be built to bury the late pharaoh for his journey, to the afterlife as the king of the dead.

AHN The objects you employ are limitless in variety, ranging from art history images to folk crafts, kitsch and cartoon characters, and everyday items, there seems to be no hierarchy among them. While this exhibition likewise is an assemblage of such objects, it's interesting to see a number of motifs and titles related to the human body and health.

N&GM Health is so important. It plays a role in how we perceive ourselves. It shapes our self-image and self-worth in the context of our existence in the space-time of the world.

In general, objects are bought or found, or handmade, customized, borrowed and so on. They tie us to the past, we think that they make us who we are, we imagine that they represent us in a way. What really defines us are experience, relationships and it seems loss. Speaking of which, frankensteining is a method we like to employ.

Why anatomy/organs and texture, inside and outside? Anatomy focuses primarily on the structures of humans and animals through methods, like dissection and the examination of body parts arrangement. In plants anatomical elements encompass roots, stems, and leaves. Texture pertains to the surface look and feel of materials such as glass.

Just an example: in today's society where social media is a common part of our everyday routines, people, across various age groups are mentally impacted by the societal standards of appearance and body-image ideals that prevail in their surroundings. Many experience dissatisfaction with their bodies due to factors like obesity or anorexia. Certain common concerns include breasts, hair, facial structure, skin tone, muscles and so on. This trend emerged quite recently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has since become more widespread. In the past individuals regarded their bodies rather as given and unchangeable without questioning it.

미술의 '진지함'에 대응하는 김나영과 그레고리 마스의 짓궂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만, 예술과 삶의 관계를 '대사작용'으로 파악하는 아이디어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김 & 마스 특정 쿠키를 특정 티에 담그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프루스트적인 구절. 냄새는 시간과 장소를 아우르는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반응을 유발하지요. 자전적 기억은 종종 후각과 미각과 같은 감각에 의해 유발돼요. 냄새는 매우 쾌락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코가 중요하고요. 이 그림이 오늘날 티후아나에서 전시된다면 관람자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될 겁니다. 티후아나는 우리 두 사람이 방문하고 즐겼던 도시예요. 코카인 밀매와 관련하여 매년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죠. 범죄조직들은 회복력이 매우 강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요. 그 결과로 마약잠수함, 인공 엉덩이, 열린 상어, 죽은 시체와 산 시체, 국경을 약화시키는 마약터널과 같은 위험천만하고 비정상적인, 완전히 이상한 형태의 운송수단들이 등장했어요. 놀랍도록 흥미롭고 혁신적인 수단들이죠. 이는 예술작품들의 '의미'가 얼마나 쉽게 다양한 의미의 혼합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 중정에 놓인 거대한 헬로키티는 새로운 얼굴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반야(般若) 키티(Kitty Enlightenment)(2024)*라는 예사롭지 않은 이름도 있구요. 작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김 & 마스 그녀에게 야누스의 얼굴을 했어요. 그녀를 “시작, 문, 전환, 시간, 이중성, 출입구, 통로, 프레임, 그리고 끝의 신”으로 만들었죠. 미니마우스가 쥐가 아닌 것처럼 헬로키티는 고양이 아닙니다. (제작사인) 산리오는 헬로키티가 어린 소녀에 더 가깝다고 말하지요. 우리는 동물을 좋아해요. 그래는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문어는 촉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코끼리는 절대 이혼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고, 고양이는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집에는 세 마리 털복숭이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안 작품들의 제목은 오브제들의 연쇄적인 암시작용을 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어유희 자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대해 의견주세요.

김 & 마스 우리는 사물의 속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관람자가 가정하거나 기대하는 바를 뛰어넘는 연결성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우리는 관계를 만듭니다. 관계는 서로 다른 사물이나 개념, 사람들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에요. 이 사물들 사이의 공간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어유희를 좋아하고 작업에 널리 사용하지만만, 언어유희를 발명해내는 데에는 그다지 능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문학적 재능이나 미술사 지식, 재치나 인터넷 등 자료가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 물론 그레고리의 형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안 작품에는 오브제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레디메이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교하게 손맛을 입히는 '핸드메이드'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개입됩니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마르셀 뒤샹의 후예라 할 수 있을 텐데, 본인들 작업의 형식적 특이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This shift is part of a pattern, in which our bodies are no longer essential to us.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no longer rely on our bodies as much as before. Many physical tasks that were once vital such, as producing food, engaging in relationships, and giving birth have been outsourced.

Our artworks are so much better than we both are.

AHN *Booger Drawing*(2020-2024), with toilet-related themes and poop drawings, exemplifies your characteristic wicked sense of humor, challenging the so-called seriousness of art. But I think the work also reveals y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life – as a metabolism. What would you say about this perspective?

N&GM The Proustian passage with the moment when the taste of a certain cookie dipped in a certain tea vividly evokes childhood memories. The smell triggers a reaction that leads to an attempt to reconstruct a memory that encompasses both time and place. Autobiographical memories are often triggered by our senses such as smell and taste. Smells are intensely hedonistic and therefore noses are important.

If the picture were shown in today's Tijuana, it would have a completely different connotation, meaning and significance for the viewer. Tijuana, a city we have visited and enjoyed. The most dangerous city in Mexico with over 2000 deaths per year related to cocaine trafficking. Criminal networks are extremely resilient and able to adapt quickly to changing circumstances. The result is a series of risky, crazy and downright strange transportation methods such as narco-submarines, artificial butts, frozen sharks, dead and living corpses, narco-tunnels that undermine borders. These methods are interesting, innovative and downright amazing. This is just one example of how the “connotation” of artworks can easily branch out into a mixture of different meanings.

AHN The giant Hello Kitty installed in the courtyard is wearing a facial expression that's not familiar to us, sparking curiosity alongside its title, *Kitty Enlightenment* (2024). Could you explain this work?

N&GM We gave her a Janus face. We turned her into “a god of beginnings, gates, transitions, time, duality, doorways, passages, frames, and endings”. “Hello Kitty” is not a cat in the same way Minnie Mouse is not a mouse. Sanrio says it's more like a little girl. We love animals, whales, because of their sheer size already, octopods, because they think with their tentacles, elephants, because they never have been heard to divorce, and cats too. Cute alert! We have 3 furry friends at home.

AHN Your work titles sometimes set off a chain of associations between objects, and other times they are puns themselves. Can you share your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objects?

N&GM We not only point out properties of objects, but also make connections that hopefully go beyond

김 & 마스 마르셀 뒤샹에게 레디메이드는 평생의 매력을 선사했어요. “레디메이드에서 이상한 점은, 내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정의나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하기도 했죠. 그는 한 시즌에 레디메이드를 하나 이상 생산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죠.

30여 년 동안 마르셀 뒤샹은 총 13점의 레디메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두 시즌마다 하나의 레디메이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면, 20년 동안 벌써 40점의 레디메이드를 만드는 것이 되니, 우리가 꽤나 주체받지요.

우리는 레디메이드나 머신메이드나 핸드메이드에 대한 향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로서 낭만화된 공예나 장인적인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오히려, “잘 만들어진 것”, “잘 못 만들어진 것”, “안 만들어진 것” 사이에 동등성이 있다고 본 로베르 필리우(Robert Filliou)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도자기 작업이 여럿 소개되었습니다. 무형의 재료에서 형태를 만들어낸 것의 의미와 그 과정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 & 마스 우선 도자기 작업은 10,000년 내 반품이 가능하다는 보증서와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네요. 물론 도자기 고유의 결함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도예는 구식의 한물간 기술이죠. 구식화(obsolescence) 됐다는 것은, 오래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고 본질적으로 쓸모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는 빨리 쓸모없어지는 것으로 악명 높지요. 쓸모없어짐은 물건을 구매하는 시점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앤토니 스탠포드 비어(Anthony Stafford Beer)의 말을 인용하자면, “작동하는 것은 쓸모없어진다.” 우리는 구식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능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를 위해 그 기능을 작업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안 두 사람의 사물 관찰은 시간간과 문화를 가로지릅니다. 전통적인 족자나 병풍이 등장하는 것도 그 관심의 결과일 텐데요, *딸기 밭이 뭉툭/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Strawberry Fields Whatever/Paranoia Paradise)(2024)*를 사례로 접기, 분절, 영어로 붓글씨 쓰기, 뒤집기, 비틀즈 등등... 꼬리를 무는 질문과 의미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 & 마스 전문성이 떨어지는 패스트푸드 주방의 부스러기 같은 아마추어 철학입니다. 결정들의 결과는 우리가 인식하는 의미를 형성하고, 그 의미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요. 결정은 의미에서 파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무한한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지요. 향을 피우거나, 우유 없이 커피를 마시거나, 머리를 자르는 일 등 어떤 행위는 유의미하게 여겨집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거나, 사형수로 오래 갇혀 있는 등, 타인에게 해롭더라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도 있고요. 의미라는 개념은 복잡하고 다면적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과 깊이 얽혀 있으며, 일관성과 통찰력과 같은 특성을 포괄하는 동시에 설명적이고 예측적이지요. 당신은 예술작품에게, 또 세상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 너머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의 흔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반성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생각, 감정, 정신의 껍데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the viewer's assumptions or expectations – we create relationships. Relationships are the means by which different things, concepts or people are connected and influence each other. It' is the space between objects in which we flourish.

We love and use puns extensively, but we are not very good at inventing them. We often refer to confidants, good friends with more literary talent, art historical knowledge, more wit or the internet and of course Gregory's brother for supplies.

AHN Engaged in your works are not only the “readymade” aspect where you choose and entangle objects, but also the “handmade” aspect where you add elaborate handwork. Many artists today can be considered descendants of Marcel Duchamp. How would you describe the formal singularity of your work?

N&GM For Marcel Duchamp, the readymade exerted a lifelong fascination, because: “The strange thing about the readymade is that I've never been able to find a definition or explanation that completely satisfies me.” He advised not to produce more than one readymade per season, as this would inevitably lead to inflation.

Over a period of twenty years, Marcel Duchamp created a total of only thirteen readymades. Let's say one readymade every other season is more than enough, that's already forty damn readymades in twenty years, which is pretty presumptuous.

We have neither nostalgia for the machine made nor for the handmade, or the ready-made.

We have a dim view on the romanticized artisanal and craft as art boom. We rather prefer to advance generally with Robert Filliou's premise that there is an equivalence amongst “the well done”, “the badly done”, and “the not done”.

AHN In this exhibition, you are also presenting ceramic works. Creating forms from tactile materials must have been a special experience.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process and how it felt for you?

N&GM We should mention that our ceramic work comes with a 10,000 year return guarantee, though of course the inherent defect is excluded in the small print. It' is a very old-fashioned, an obsolete technique. Obsolescence, being outdated and no longer necessary, is what is meant by obsolescence, being essentially obsolete. Computers and cell phones are notorious for their rapid obsolescence. Obsolescence is built in at the time of purchase. To quote Anthony Stafford Beer, “If it works, it's obsolete”. We care about antiquated and not-so-antiquated capabilities, but we don't apply them for their own sake. It's a means to an end.

AHN Your approach to observation objects transcends time, space, and cultures. This could explain why traditional forms like hanging scrolls and folding screens appear in your works. In the case of *Strawberry Fields Whatever/Paradise Paranoia*(2024), a train of thought and questions

붓글씨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김정희의 서투른듯하면서도 맑고 고아한(줄박청고 拙樸淸高), 어수룩하면서도 깨끗하고 순박한(고졸담박 古拙淡泊) 서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 전작 중 두 사람의 관계에 힌트를 주는 **두부 플로우 차트(Tofu Flow Chart)**(2007)라는 작품을 기억하고 있어요. 김나영이 ‘무지개’, ‘승고’, ‘건강’, ‘氣(Qi) 등과 연관하며 상부에 위치한 반면, 그레고리 마스는 필립 K. 딕(Phillip K. Dick)이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등 과학적 몽상가들과 교류하며 하부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 칸의 미술가 로베르 피유의 등장 이 의미심장한데, 그와는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요? 그를 오마주한 작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김 & 마스 협업이란 마치 전쟁처럼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공통의 목표와 결과를 추구하며 충돌하는 아이디어와 관점의 밀물과 썰물. 우리는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영향 아래 있으며, 멋진 홍수 속에서 탐닉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아웃사이드 아트예요. 아웃사이드 아트 작품의 순수한 본질에 매력을 느낍니다. 예술가의 초점이 이기심이나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자기홍보에 있지 않고, 마르지 않는 창의력의 샘이 그 스스로가 진정성 있고 깊이 있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그러한 아웃사이드 예술가들의 존재에서 공명하는 신비주의나 정신성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서를 많이 하고 수집도 합니다.

로베르 피유는 1963년 “예술의 탄생일”을 만들었어요. 그는 백만 년 전에는 예술이 없었으며 1월 17일, 누군가가 물통에 마른 스펀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술이 탄생했다고 주장했어요. 거기에서 착안하여 우리는 그 기간을 2백만 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휴머노이드의 조상이 최근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8년에 우리 전시 제목을 “2백만 년의 예술”이라 지었습니다.

필립 K. 딕은 심각한 편집증을 앓았다고 알려진 작가예요. 그의 작업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종교에 대한 강한 집착도, 도덕성과 철학에 대한 깊은 참여도 아니예요. 그는 우리가 이성과 시공간을 이해하는 데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는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공상과학 작가들과는 달리, 기술발전이나 우주탐사보다는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 사회의 인사이드보다는 아웃사이드였던 겁니다.

안 2008년 글래스고에서 전시작업으로 시작한 킴갤러리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현배경과 현재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김 & 마스 “킴갤러리”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 미술계에서 두번째 도시라던 글래스고에는 작가와 화랑은 꽤 있었지만 컬렉터는 없는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기있던 매리 매리 갤러리(Mary Mary Gallery)는 운영자의 이름이 매리도 아니고, 전시 공간도 따로 없이 갤러리 오너가 본인의 아파트에서 갤러리를 차린 것이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작업으로서의 갤러리’ 런칭 쇼를 했던 겁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려는 생각보다는 작가, 작품, 기존 미술 상업구조 등의 시스템을 궁리하는 차원에서 전시를 만들었어요. 이 전시 직후에 베를린에 갔는데, 실제로 갤러리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지인의 의상

arise – there is folding, segmentation, writing calligraphy in English, flipping over, Beatles’ song, etc. Could you explain the role these elements play?

N&GM We have crumbs from the fast-food kitchen for you. The result of decisions shapes the meaning we perceive, which is influenced by the situation at hand. Decisions do and do not derive from meaning. There is an infinite feedback loop. Some activities can be considered meaningful, like burning incense, drinking coffee without milk, or getting a haircut, even if they are harmful to others, like smoking, inventing dynamite, or being in a tight spot for a long time, on death row for example.

The concept of meaning is intricate and multifaceted; it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notion of time and encompasses qualities such, as coherence and insightfulness while being both explanatory and predictive in nature. What do you mean to the artwork, the world. Is there significance beyond death. Can we find meaning in its wake? Living people have the capacity for self-reflection. They are aware of their own existence and have insights into their inner thoughts, emotions, and mental shells.

As for calligraphy we are influenced by Kim Jeong-hui and his inept but clear and elegant yet clumsy, clean, and innocent handwriting.

AHN I'd like to ask about a previous work of yours titled *Tofu Flow Chart*(2007), a work that hint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you two. It was interesting to see how Na Kim is positioned at the top, associated with “rainbow,” “sublime,” “health,” and “Qi”(氣), while Gregory Maass is in charge of the substructure, interacting with science fiction writers such as Phillip K. Dick and Isaac Asimov. The artist Robert Filiou also appears, quite significantly. What kind of influence did he have on you?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other works that pay homage to Filiou?

N&GM Collaboration sounds suspiciously like war. An ebb and flow of ideas and perspectives clashing in pursuit of common goals and outcomes. That's not what we do.

We are, of course, under many influences, it's a wonderful flood that we indulge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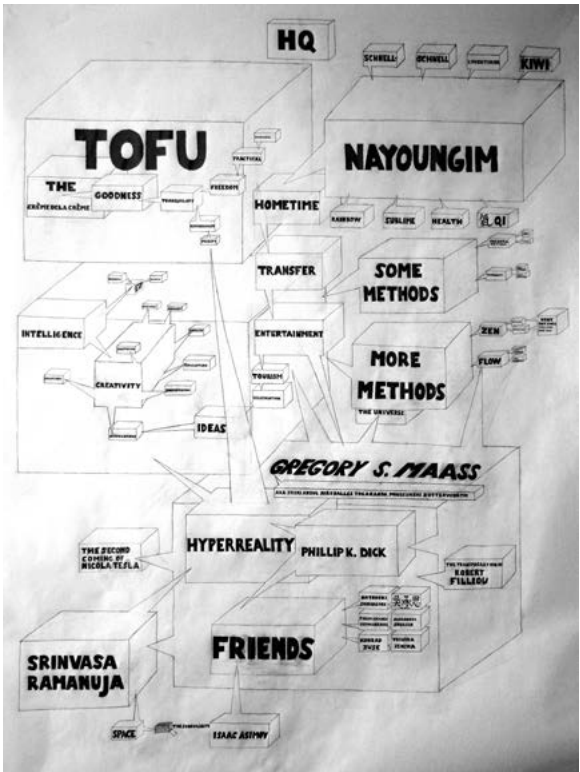
We have a whole range of avocations. One of them is outsider art. The unadulterated nature of the artwork is captivating. The artist's focus is not on self-promotion out of egotism or amour propre, but springs from a wellspring of creativity that compels them to work authentically and profoundly from within themselves. There is often an influx of mysticism or spirituality that resonates at some level of their existence. And books we still read and gather the real thing around us.

Robert Filiou proposed “Art’s Birthday” in 1963. He suggested that *million* years ago, there was no art. But one day, on January 17th to be precise, Art was born. Filiou says it happened when someone dropped a dry sponge into a bucket of water. We changed that to two million years because of the recent discovery of far older humanoid ancestry. And titled our show ‘Two million years of Art’ in 2008.

쇼룸에서 팝업 전시를 열었습니다. 전시가 가능한 작가들은 실제 작품을 전시했지만, 예산과 운송 문제 등으로 실물 전시가 불가능한 작가들의 작품은 우리가 사진을 출력해 붙여서 조각처럼 만들어 전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관객들이 그것을 갤러리라고 믿고 보길래, ‘꼭 우리가 알던 방식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가끔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그보다는 자유롭게 편한 위치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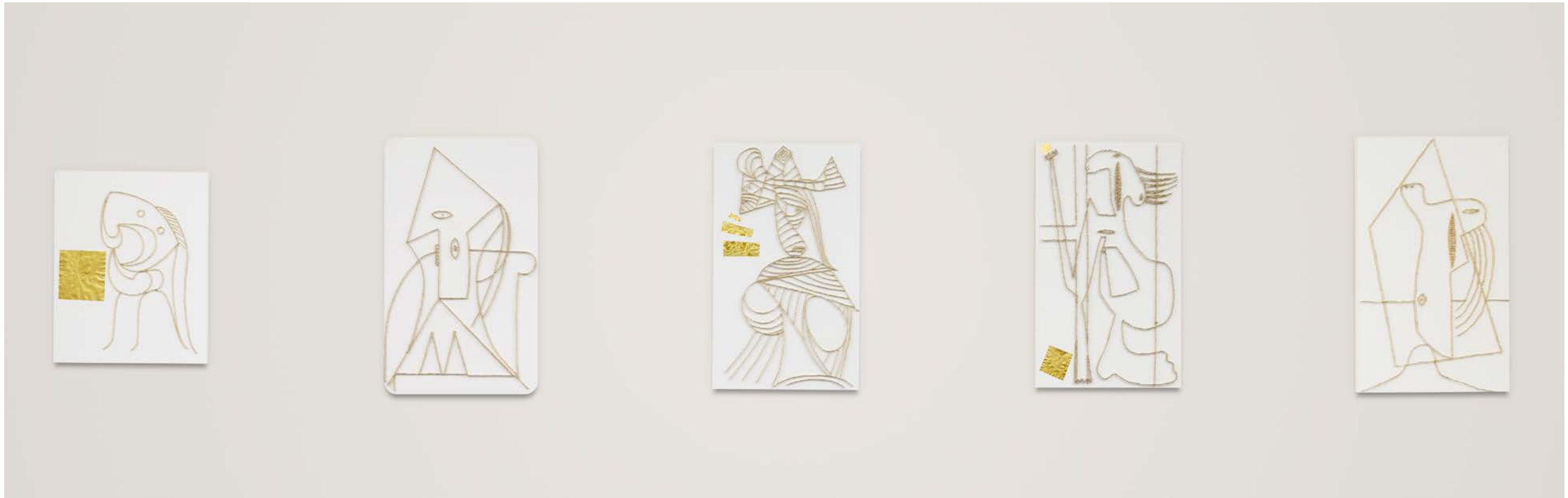
안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불러 일으킵니다만, 유머는 중요한 미덕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들에게 ‘유머’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 마스 우리는 유머리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웃기는 제작 방법론을 좋아해요. 여기서 ‘웃긴(funny)’이라는 말의 의미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상하거나 기묘한 성질의, 어쩌면 재치가 가미된.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펼었어 1~5
I nailed it 1~5, 2024

펼었어 5(부분)
Detail of I nailed it 5





(왼쪽부터 From the left)

크기가 중요해
Size Matters, 2024

로마식 신사의 잔
Roman Gentleman's Goblet, 2024

꼭 필요한 경우(디오니소스)
By Any Means Necessary(Dionysus), 2024

아미타불
Amitabha Buddha, 2024

좋은 해결(꺼져)
Good Riddance(FOKOF), 2024

비키니시티
Bikini Bottom, 2024





계속 웃어라
Keep Smiling,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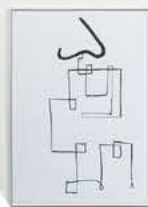
엑스 해부
X Autopsy, 2024



거품은 남근을 따른다
Foam Follows Phallus 2.0, 2024



페퍼민트 패티의 정점
PPP(Peppermint Patty Pinnacle), 2024





편집증 낙원
Paradis Parano, 2024



편집증 낙원
Paranoia Paradise, 2024



세기의 대결, (부분)
Battle of the Century, Detail, 2022-2024
 © 사진 장형석, Photo by Hyeongseok Jang



피라미드 유
Pyramid U, 2024



(앞 front)
 펀치와 주디
Punch and Judy, 2024

무질서 도관
Chaos Conduits, 2024

(뒤 back)
 헤비 멘탈
Heavy Mental, 2024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반야(般若) 키티
Kitty Enlightenment, 2024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2004년부터 협업, 듀오 작가로 활동	
김나영	
1996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 프랑스
198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서울, 한국
그레고리 마스	
2001	안반에이크 아카데미, 마스트리히트, 네덜란드
1994	조형예술 고등연구원, 파리, 프랑스
1995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 프랑스
1992	소르본 대학 철학과, 파리, 프랑스
주요 개인전	
2022	“레이디 분수와 담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2021	“러닝 머신”, 부평서중학교, 인천, 한국
2019	“그리시코너”, 다함 갤러리, 안산, 한국
	“리프로스펙티브”, 성곡미술관, 서울, 한국
2016	“호보사피엔스”, 금고 예술가 클럽, 브뤼셀, 벨기에
2014	“무아 자기도취”, 스플릿 파운틴, 오슬랜드, 뉴질랜드
2013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메이크샵 아트 스페이스, 파주, 한국
2012	“하와이에겐 맥주가 없다”, 아트클럽1563, 서울, 한국
	“1845년 부터 세일 중, 템포러리 서비스”, 더북소사이어터, 서울, 한국
2011	“파워 매스터즈: 라운지 프로젝트”,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10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는다”, 공간 해밀튼, 서울, 한국
	“최상의 이웃”, 아트 오사카, 오사카, 일본
2008	“공개된 반짝이는 공간”, 아티스트 재단, 트르구무레슈, 루마니아
	“부적자생존”, 3 bis f 현대예술센터, 액상프로방스, 프랑스
	“물과 같이 유연하라”, 올드레이디하우스 아트스페이스, 마카오, 중국
	“오, 내 다리가, 이젠 참군요, 내가 뭘하고 있었지?”, BAR 예술 연구소, 루베, 프랑스
2008	“오, 자기가, 나는 날것이 좋아”, 리히텐베르크 박물관, 베를린, 독일
	“뒷모습이 예쁜 그녀”, 도시 갤러리 기단 프로젝트, 서울, 한국
	“오토포커스”, 갤러리 신라, 대구, 한국
	“킴킴갤러리”, 마켓 갤러리, 글라스고, 스코틀랜드
	“귀찮게 굴지마라”, 갤러리 두 주르 아그네스 b프로젝트 룸, 파리, 프랑스
	“미술사 2백만년”, 퀸스틀러하우스 S11, 솔로투른, 스위스
2007	“매드 닥터”, 프리쉬 벨 드 메 갤러리, 마르세유, 프랑스
	“한쌈 두부”, 아트스페이스 데프카, 아센, 네덜란드
2006	“축복의 샤워”, 로틀링겐 컬러 팩토리, 보훔, 독일
	“성충전에서 온 싫증난 좀비들”, 아모트 오페라가르드, 비그스타드, 노르웨이
	“우주복을 입고 여행하다”, 로칼01, 엔트워프, 벨기에
	“무감각의 미”, 미니살롱, 뮌헨, 독일
2005	“대담한 안구”, 힌터콘티, 함부르크, 독일
	“로봇치고는 괜찮아”, 네덜란드 카카오 팩토리, 헬몬트, 네덜란드

Nayoungim & Gregory Maass	
Working together as artist duo since 2004	
Nayoungim	
1996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France
1988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Gregory Maass	
2001	Jan Van Eyck Academie, Maastricht, Holland
1994	L'Institut des Hautes Études en Arts Plastiques, Paris, France
1995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aris, France
1992	University of Sorbonne (Philosophy), Paris,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2	“Lady Fountain & Krummer Hund”, Clayarch Gimhae Museum off-site, Gimhae, Korea
2021	“Learning Machine”, Bupyung” Seo Middle School, Incheon, Korea
	“Reprospective”,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19	“Greasy Corner”, Gallery Daham, Ansan, Korea
2016	“Hobo Sapiens”, Coffre-Fort Artist Club, Brussels, Belgium
2014	“No-ego Ego Trip”, Split Fountain, Aukeland, New Zealand
2013	“The Things You Think are Great”, Makeshop Art Space, Paju, Korea
2012	“There is No Beer in Hawaii”, Artclub1563, Seoul, Korea
	“Sales since 1845; Temporary Service”, The Book Society, Seoul, Korea
2011	“POWR MASTRS: Lounge Project”, Artsonje Center, Seoul, Korea
2010	“The Early Worm Catches the Bird”, Space Hamilton, Seoul, Korea
	“The Best Neighborhood”, Art Osaka, Osaka, Japan
2009	“Survival of the Shitest”, 3 bis f, Aix-en-Provence, France
	“Unveiled Twinkling Space”, ARTest Foundation, Tirgu Mures, Romania
	“Ah, Sorry... My Leg... Wait... Ooh, That’s Better. Where Was I?”, Le Bureau d’Art et de Recherche, Roubaix, France
	“You Got to be Like Water”, Old Lady House Art Space, Macau
2008	“KIM KIM GALLERY”, Market Gallery, Glasgow, Scotland
	“Don’t Hassle the Hof”, Galerie du Jour Project-Room, Paris, France
	“Oh, Baby I Like It Raw”, Stadthaus Museum Lichtenberg, Berlin, Germany
	“Auto-focus”, Gallery Shilla, Daegu, Korea
	“Two Millions of Art”, Kuenstlerhaus S11, Solothurn, Switzerland
	“Mona Lisa Overdrive”, City Gallery, Seoul, Korea
2007	“The Mad Doctor”, La Galerie Friche Belle de Mai, Marseille, France
	“Handsome Tofu”, Artspace DeFka, Assen, Holland
2006	“Shower of Blessings”, Kultur Magazin Lothringen, Bochum, Germany
	“Have Spacesuit-Will Travel”, Lokaal01, Antwerp, Belgium
	“The Beauty of being Numb”, Mini-Salon, Munich, Germany
	“Jaded Zombies from the Stratosphere”, Amot Operagard, Bygstad, Norway
2005	“Bold Eyeball”, Hinterconti, Hamburg, Germany
	“Fine for a Robot”, De Nederlandsche Cacaofabriek, Helmond, Holland

1	<i>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i> , 종이에 먹, 병풍 <i>Paradise Paranoia</i> , Ink on paper, folding screen 282 × 139 × 3cm,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2024	28	<i>거품은 남근을 따른다</i> , 목재, 철, 플라스틱, 페인트, 소프트 비닐 <i>Foam Follows Phallus 2.0</i> , Wood, metal, plastic, paint, soft vinyl 75 × 47 × 150 cm, 60 × 60, 125 cm, 2019-2024
2	<i>기필코 어수선한(디오니소스)</i> , 브론즈, 혼합재료 <i>By Any Means Messesary(Dionysus)</i> , Bronze, mixed media 12 × 14 × 50 cm, 2024	29-40	<i>리버럴_코팩지 드로잉</i> , 종이에 먹, 유리, 알루미늄 테이프 <i>Booger Drawing_Liberal Version</i> , Ink on paper, glass, aluminum tape 40 × 70 cm, 52.4 × 59.7 cm, 29.5 × 41 cm, 25 × 33 cm, 20 × 29 cm, 14 × 24cm, 2020-2024
3	<i>아미타불</i> , 도자, 목재, 혼합매체 <i>Amitabha Buddha</i> , Ceramic, wood, mixed media 22 × 15 × 68 cm, 2024	41	<i>눈먼 자가 모든 것을 본다</i> , 알루미늄, 안경 <i>Blind Eye Sees All</i> , Aluminum, glasses 13 × 10 × 10 cm 2024
4	<i>좋은 해결(꺼져)</i> , 도자기, 혼합매체 <i>Good Riddance (FOKOF)</i> , Pottery, mixed media 30 × 25 × 34 cm, 2024	42	<i>피라미드 유</i> , 유리, 석고, 혼합매체 <i>Pyramid U</i> , Glass, plaster, mixed media 27 × 29 × 58 cm, 2024
5	<i>크기가 중요해</i> , 유리, 편물, 가죽, 도자기 <i>Size Matters</i> , Glass, knitting, leather, pottery 26 × 26 × 36 cm, 2024	43	<i>공평무사 망상-무2</i> , 도자기에 유약 <i>Delusions of Candor-Radish 2</i> , Glazed stoneware 63 × 12 × 12 cm, 2022
6	<i>로마식 신사의 잔</i> , 도자, 유리 <i>Roman Gentleman's Goblet</i> , Ceramic, glass 6 × 6 × 25 cm, 2024	44	<i>데스 이즈 모어 2.0</i> , 수석, 스테인리스, 시트지, 플라스틱 <i>Death is More 2.0</i> , Viewing stone, stainless steel, vinyl, plastic 70 × 56 × 68 cm, 2024
7	<i>비키니시티</i> , 혼합매체 <i>Bikini Bottom</i> , Mixed media 28 × 16 × 51 cm, 2024	45	<i>귀여움 주의</i> , 수건에 자수 <i>Cute Alert</i> , Stitches on towel 102 × 94 cm, 2006-2016
8	<i>작업실에서의 힘든 하루 -코니송이라 불린 케서방</i> , 도자기에 유약, 혼합매체 <i>A Rough Day at the Workshop-Picolas Cage called Cornichon</i> , Glazed stoneware, mixed media 24 × 30 × 13 cm,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2022-2024	46	<i>헤비스모커</i> , 도자기, 철, 플라스틱, 담배 공초 <i>Heavy Smoker</i> , Pottery, metal, plastic, cigarette 28 × 28 × 100 cm, 2024
9-13	<i>작업실에서의 힘든 하루 1~5</i> , 도자기에 유약, 혼합매체 <i>A Rough Day at the Workshop 1~5</i> , Glazed stoneware, mixed media 37 × 24 × 32 cm, 28 × 24 × 39 cm, 34 × 18 × 13cm, 24 × 30 × 13 cm, 25 × 20 × 17 cm, 2022-2024	47	<i>공평무사 망상-배추</i> , 도자기에 유약 <i>Delusions of Candor-Cabbage</i> , Glazed stoneware 35 × 35 × 28 cm, 2022
14-18	<i>찔었어 1~5</i> , 못, 잠성재, 동판, 바니쉬 <i>I Nailed it 1~5</i> , Nail, laminated wood, copper plate, varnish 58 × 96 × 4 cm, 2024	48	<i>공평무사 망상-버섯</i> , 도자기에 유약 <i>Delusions of Candor-Mushroom</i> , Glazed stoneware 20 × 20 × 30 cm, 2022
19	<i>너도 피라미드</i> , 석고, 목재 <i>Pyramid U too</i> , Plaster, wood 33 × 30 × 133 cm, 2024	49	<i>엑스 해부</i> , 종이에 콜라주, 액자, 혼합매체 <i>X Autopsy</i> , Collage on paper, frame, mixed media 104 × 90 × 10 cm, 2024
20	<i>홍석이는 X자식</i> , 캔버스에 유채, 액자 <i>Hongsok is an A-hole</i> , Oil on canvas, frame 43.3 × 160.5 × 2 cm, 2011	50	<i>공평무사 망상-파슬리</i> , 도자기에 유약 <i>Delusions of Candor-Parsley</i> , Glazed stoneware 45 × 20 × 20 cm, 2022
21	<i>편집증 낙원</i> , 종이에 도장, 액자 <i>Paranoia Paradise</i> , Stamp on paper, frame 30.5 × 21 cm, 2024	51	<i>공평무사 망상-무1</i> , 도자기에 유약 <i>Delusions of Candor-Radish 1</i> , Glazed stoneware 70 × 15 × 15 cm, 2022
22	<i>헤비 멘탈</i> , 종이에 먹, 병풍 <i>Heavy Mental</i> , Ink on paper, folding screen 440 × 151 × 3 cm,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2024	52	<i>펄치머리</i> , 도자기, 실리콘, 플라스틱 <i>Mullet(Haircut)</i> , Pottery, silicon, plastic 33 × 23 × 43 cm, 2022
23	<i>펀치와 주디</i> , 철, 페인트, 소프트 비닐 <i>Punch and Judy</i> , Metal, paint, soft vinyl 130 × 120 × 80 cm, 2024	53	<i>계속 웃어라</i> , 유리, 철, 소프트비닐, 자점토, 레진 <i>Keep Smiling</i> , Glass, steel, soft vinyl, paper clay, resin 109 × 30 × 30 cm, 2024
24	<i>무질서 도관</i> , 철 페인트, 소프트 비닐 <i>Chaos Conduits</i> , Metal, paint, softy vinyl 100 × 80 × 130 cm, 2024	54-57	<i>꽃 낚잠 1~4</i> , 족자, 천에 자수, 파리채, 자석 <i>Flower Nap 1~4</i> , Hanging scroll, stitches on fabric, fly swatter, magnet 110 × 43 cm, 2024
25	<i>편집증 낙원</i> , 천에 자수, 액자 <i>Paradis Parano</i> , Embroidery on fabric, frame 86 × 61 × 2.5 cm, 2024	58	<i>미니 마우스</i> , 천에 자수, 액자 <i>Mini Mouse</i> , Stitches on fabric, frame 60 × 60 × 4 cm, 2020-2024
26	<i>페퍼민트 패티의 정점</i> , 혼합매체 <i>PPP(Peppermint Patty Pinnacle)</i> , Mixed media 144 × 70 × 70 cm, 2021-2024	59	<i>트럭 운송 유지</i> , 유화, 액자, 제스모나이트 <i>Keep it Trucking</i> , Oil painting, frame, jesmonite 42 × 42 × 4.5 cm, 2024
27	<i>세기의 대결</i> , 도자기에 유약, 권투장갑 <i>Battle of the Century</i> , Pottery, boxing glove 70 × 80 × 70 cm, 2022-2024	60	<i>반야(般若) 키티</i> , 레진, 제스모나이트, 전등, 바니쉬, 아크릴 물감, 대리석, 철 <i>Kitty Enlightenment</i> , Resin, jesmonite, lightbulb, varnish, acrylic color, marble, metal 170 × 150 × 258 cm, 110 × 110 × 61 cm, 2024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주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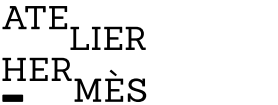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Every commitment made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guided by this single, unifying conviction. Put another way, by acting for the well-being of all, we grow and become better human beings. The Foundation puts in plac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transmission of skills and know-how, the creation of new work across the arts,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through several programmes designed to accompany its beneficiaries as they build tomorrow's world. Together, these actions reflect our fundamental aims: to cultivate shared intelligence, harness progress for the greater good, and enshrine humanitarian values at the heart of today's society. Established in 2008,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s presided over by Olivier Fournier and directed by Laurent Pejoux.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Anaïs Koenig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Managing Director: Sung Hun Han
Communication Director: In Hae Yeo
Sr. Art & Window Manager: Hyejo Yum
Communication Assistant Manager: Yeji Sh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 3015 3258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7시
매주 수요일 및 설날 연휴
(1월 1일, 29일, 30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Soyeon Ahn
Graphic Designer: Yesung ENG
Translator: Soojin Lee
Exhibition Photographer: Sangtae Kim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and Tokyo.

